

문화적 실천으로서 사회운동의 변화:

두리반 운동을 중심으로*

옥은실** · 김영찬***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저항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운동, 문화적 실천, 두리반, 자립음악생산조합

1. 들어가며

2013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실천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문화적 행위는 일상적인 형태로 세대, 성별, 계층 등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 생산 방식이나 수용 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문화적 실천과 수용 방식이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산업 현장이나 국가 홍보, 사회운동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리반¹⁾ 운동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예로, 사회운동과 문화적 실천을 접합하여 새로운 운동방식을 주도했다.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목숨을 잃은 미선이·효순이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촛불집회는 한국

* 이 연구는 201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lameta@gmail.com)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culturally@naver.com), 교신저자

1) 두리반은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크고 둥근 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칼국수와 보쌈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상호를 지칭한다. 나아가 두리반을 명동의 ‘카페 마리’, 용산의 ‘남일당’과 같이 강제 철거에 대항한, 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흥대앞의 상징적 공간으로 읽고자 한다.

사회운동사에서 시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4조 5항)에 따라 문화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쇠파이프나 화염병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대신 비폭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촛불을 이용한 시위 방식을 추구한다. 이외에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문화제가 열리는 등 한국사회 내부의 중요한 이슈마다 촛불은 정치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생산해냈다(이동연, 2008).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사회운동의 목적과 성격이 노동 및 계급 간의 차별에 집중되던 것과는 달리 젠더, 환경, 재개발, 인권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정태석, 2006).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사회운동 방식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발생한다. 첫째, 조직의 변화이다. 중앙 집중적이고 수직적이며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조직된 구사회운동과 다르게 신사회운동은 무형의 유연하고 느슨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운동 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물리적 강압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최근 사회운동은 놀이와 축제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 주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정치적 실존 형태로서의 민중(people)에서, 강제적인 통일성과 대립된 의미로서의 다수성의 존재이면서 개별자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다중(multitude)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이동연,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두리반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리반 운동의 발생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운동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역사적으로 맥락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기존 사회운동의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운동이 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논의되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내부의 다양한 쟁점들과 연결되고 문화 영역과 접합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회운동의 영역 확장과 변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화 되었던 문화 활동 영역에 초점을 맞춰 두리반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살피고, 두리반 참여자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구체적 양상들을 현장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에게 사회참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변화 과정과 문화영역의 연결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철거 농성이라는 소외된 영역에 머무르던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 일상으로 포섭하고 이를 예술적 행동주의와 연대를 통해 정치화하는 과정은, 재차 강조하지만, 기존 사회운동에서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과는 크게 다른 지점이다. 두리반이라는 구체적 사례는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났던 민족 문화적/조직적 문화운동, 공동체 및 민족예술운동과의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향후 문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영역의 다기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운동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배경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운동의 주제와 참여 주체 그리고 운동 방식은 상당 부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넓게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정보기술의 발달, 세계화, 자본주의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사회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첫째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를 간략히 개괄해 보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개념인 ‘다중’(multitud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기존 사회운동과 다른 신사회운동의 특성과 본 연구의 대상인 두리반이 위치했던 흥대앞의 장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적 실천 주체로서 다중의 부상

한국의 사회운동이 조직적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는 불평등한 자본의 소유와 분배에 따른 계급 간의 대립 구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노동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는 학생, 종교단체 지식인과 연대하고 조합 및 정당을 조직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권위적 지배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2·12사태’와 ‘민주화의 봄’은 제5공화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정적 사건이다. 학생과 지식인은 야학과 현장 투신을 통해 노동자 및 민중과 연대를 시도하고 이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해 민주화 투쟁을 벌였다. 이후 비교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접어들고 난 뒤 사회운동의 쟁점은 노동 및 계급적 성격을 벗어나 환경, 여성, 반핵, 인권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2년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학생의 사인 규명과 추모를 위해 같은 해 11월 열린 촛불집회²⁾와 성미산 지키기 운동,³⁾ 콜트콜텍,⁴⁾ 용산 남일당⁵⁾ 등이 그 구체적 사례이다.

촛불집회(2002, 2004), 성미산 살리기 운동(2002), 콜트콜텍(2007), 용산 철거 반대 시위(2009) 등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많은 사회운동은 문화적 실천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또한 과거 노동자

2) 이 집회는 한 대안매체의 시민 기자가 인터넷에 두 여학생을 위한 추모를 제안하자 네티즌 사이에 소식이 알려지며 광화문 인근에서 벌어지게 됐다. 이러한 시위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와 촛불이라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2000년 이후 변화한 시위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한다.

3) 서울 마포구의 자연숲인 성미산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배수지 건설을 반대하고 한양재단이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을 저지함으로써 성미산 일대를 생태 공원화하고자 하는 주민 운동이었다 (김종호, 2003).

4)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2006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 7년째 투쟁하고 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본사 점거투쟁, 철탑 고공농성, 법률 투쟁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시위하고 있는 동시에 밴드를 결성하여 음악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러 뮤지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인, 사진가, 미술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이 더해지고 있다.

5) 용산 철거 반대 운동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제대로 된 보상 또한 받지 못했지만 철거민들에게 용산은 상징적 투쟁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용산 철거민들은 국가와의 부당한 싸움을 지속하며 물리적·문화적 힘을 빌려 시위를 이어갔으나, 투입된 공권력에 저항하는 물리적 시위가 더욱 두드러졌기에 사실상 문화 운동의 사례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용산을 시발점으로 두리반과 카페 마리 등 다른 재개발 지역 운동에 문화 운동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미하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사회운동의 주체가 환경, 재개발 반대 등으로 다양해진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계급, 학생 중심의 사회운동과 달리 2000년대에는 운동의 주체가 다양한 욕망을 담지 한 소수자들로 분화되었고 능동적인 시민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사회운동이 계급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거대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참여 주체의 의식과 활동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촛불집회를 시발로 전통 노동자 계급 중심의 단일한 구성과는 대립되는 소위 다중(multitude)⁶⁾으로 호명되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어우러지는 탈계급적 운동의 출현을 목격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그동안 운동 공간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과 여성을 각각 “탈 물질적인 2.0세대”(김호기, 2008)와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김영옥, 2009; 목수정, 2008)으로 탈바꿈시켰고,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촛불집회는 “새로운 주체들의 부상”(조정환, 2009), “세계사적으로 선진적인 아름다운 사건”(유재진, 2008)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기존의 영역화 전략에 대해 “단일한 목적과 방향, 단일한 조직, 단일한 투쟁방식에 대한 거부”(조정환, 2009: 114)로 반응하면서 촛불집회와 전통 사회운동 간의 차이와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다중은 ‘촛불 소녀’, ‘배운 여자’, ‘유모차 부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계급보다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계기로 출현하였다고 분석된다(조정환, 2009; 김호기, 2009; 조명래, 2009; 강내희, 2009; 조기숙·박해윤, 2009; 박희봉 외, 2009; 이득재, 2009; 고길섭, 2008; 정인경, 2008; 김영옥, 2009; 목수정, 2008; 김철규 외 2009; 이해진, 2008). 즉 2000년 이후 사회운동의 참여 주체들은 “단일한 목적과 방향, 단일한 조직, 단일한 투쟁방식에 대한 거부”(조정환, 2009:114)를 내세우는, 탈영역적/탈계급적/자율적 연대(황진태, 2011)라고 할 수 있다(정인경, 2008에서 발췌 및 재인용).

다중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18세기 영국 노동계급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하위문화연구 등이 그 예이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수동적인 문화 소비보다 인간의 실천행위를 통한 문화 생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대중문화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항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비판적 잠재력과 정치적 능력에 주목했다(목수정, 2008). 원용진(1996)은 대중문화가 해석의 갈등 및 문화적 갈등의 장이라고 강조하고 ‘문화의 정치성’을 하면서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를 허물어 버리려는 문화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강명구(1993)는 한국의 노동청년들이 중류층의 문화를 수용하고 있어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들의 노동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양된 사실을 언급한다(정철희, 2003, p. 164에서 재인용).

중간계급의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사회운동은 일상의 정치를 시도하며, 분화되고 특화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다양하게 분화된 쟁점들은 다중의 적극적 참여와 이들의 정치적 가능성 및 능력을 크게 요구한다. 두리반 운동의 참여자는 이러한 다중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와 문화의 결합을 시도한 구체적 사례다. 무엇보다 두리반 운동은 공간과 주체, 문화가 연대하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6) 네그리(Antonio Negri)는 “다중은 환원 불가능한 다양성이다. 다중을 구성하는 특이한 사회적 차이들은 항상 표현되어야 하며, 결코 동일성, 통일성, 정체성, 또는 무차별로 평균화될 수 없다. 다중은 그저 파편화된 그리고 분산된 다양성이 아니다... 그렇지만 근대적인 정체성들의 파열은 특이성들이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였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조정환 외 역, 세종서적, 2008, p.141.

2)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김호기(2001)에 따르면 신사회운동은 지난 1970-80년대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크게 증대한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반문화, 녹색당 운동 등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산업사회,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운동이었던 노동운동과 비교했을 때 위치, 목표, 조직, 행동수단의 측면에서 새로운 양식을 띠고 있다. 나아가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이 추구했던 분배구조 개선과 소유관계 개혁을 통한 물질적 진보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물질적 진보를 거부하는 해방적 자율성과 정체성을 적극 모색해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은 ‘삶의 정치’, ‘생활민주주의’ 혹은 ‘반체제운동’ 등으로 불려왔으며,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구사회운동의 조직이 형식적이고 위계적 질서를 갖고 있었던 반면, 신사회운동은 네트워크와 풀뿌리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형태의 수직적 조직 형태와 운영이 아닌 참여 주체의 자발적 실천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조직은 구성과 해체가 기존 사회운동보다 용이하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재 사회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이러한 사회를 ‘후기 현대’(late modern) 사회라고 지칭했다. 그는 후기 현대 사회가 전통사회와는 달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 구성원들은 생계 이외의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제도적 개혁 및 혁신을 지향하는 해방의 정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 단계에서는 자아실현의 촉진과 도덕적으로 정당한 삶의 양식 창조를 지향하는 신사회운동의 전개가 뒤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3) 홍대앞의 장소성

두리반 운동에 다양한 문화적 실천이 나타날 수 있었던 데에는 두리반이 위치한 홍대앞이라는 장소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홍대앞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카페, 언더그라운드 클럽, 미술학원, 예전 철로의 기억이 잔재되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공영주차장 거리와 그곳을 채우고 있는 주체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홍대앞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5년 홍익대학교가 설립되면서 홍대 학생들이 핵심 주체가 되어 정문을 중심으로 화방과 공방, 미술학원 작업실 갤러리 등의 문화적 공간을 발생시키면서 부터이다. 이후 해외 유학생들이나 일부 강남 거주자들 중심의 ‘오렌지족’ 문화가 홍대앞으로 이전되면서 홍대앞은 소비 공간으로서 강한 지역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드락’을 필두로 라이브 클럽이 생겨나면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가 장소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공간문화현상을 시작으로 홍대 지역에는 문화산업 관련 전문 직종들의 사무실이 분포하게 되었으며, 소극장과 갤러리, 사진, 출판, 만화 등 관련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복합문화지역으로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클럽 관광 상품화 전략으로, 클럽테이를 포함, 홍대앞은 문화 해방구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신정란, 2010).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0년대 초반 홍대앞 공간이 형성된 이후, 주로 젊은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클럽, 카페와 같은 문화·예술적인 장소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인디’로 대표되는 일탈적이고 파편화된 문화 실천 방식이 나타나는 하위문화가 장소를 특징짓는 요소로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흥대앞이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은 흥대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이 자발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비롯됐다. 흥대 지역의 임대료 및 지대 상승과 재개발로 인해 뮤지션들은 공연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졌고 불만이 쌓이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연을 펼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고, 사회 내부의 다른 소수자, 약자와 연대를 시도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정치적 면모를 갖추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흥대앞에 위치한 두리반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그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봤다. 관찰의 시작은 연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자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객관적 위치에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참여관찰은 약 2년에 걸쳐 불규칙적이며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자연스러운 상태(naturalistic setting)에서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관찰 장소가 공적이고, 참여자들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 위치에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참여관찰은 두리반과 같이 조사하기 힘든 집단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유력한 연구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2009년 12월 24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여 년 간 두리반이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어떻게 문화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고, 그 결과를 ‘두껍게 기술’하고자 했다. 나아가 관찰 결과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예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연구의 타당도(validity)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자료, 신문 기사, ‘뉴타운 컬쳐 파티 51+’를 영상화 한 다큐멘터리 ‘51+’ 등의 다중자료 수집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시도했다. 신문 기사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SNS 등에 기록된 두리반 현장은 기자나 업로더(uploader)가 관찰하고 참여한 현장에 대한 생동감 있는 표현이 뛰어났던 반면, 두리반이 갖고 있는 여러 모습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편적이고 과편화된 모습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51+’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는 ‘51+’가 두리반에서 나타났던 핵심적인 문화적 실천인 ‘뉴타운 컬쳐 파티’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반의 다양한 실천들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자료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와 공통분모를 발견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인터뷰는 두리반 운동에 참여했던 공연 기획자, 음악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상지는 참여관찰 중 활발한 활동을 펼치거나 포털 사이트 다음에 마련된 두리반 카페(<http://cafe.daum.net/duriban>)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업무/직책
1	안경 ⁷⁾	남	50대	소설가	두리반 운동의 총괄 운영 등
2	고래 ⁸⁾	남	40대	평화 활동가	칼국수 음악회, 국제연대를 위한 두리반 영어 모임, 두리반 라디오 운영 등
3	조용히 ⁹⁾	남	40대	다큐멘터리 감독	두리반 다큐멘터리 촬영, 편집 등
4	장발 ¹⁰⁾	남	20대	음악가	자립음악생산조합 발족, 뉴타운 쫓겨 파티 51+ 기획 등
5	철수	남	40대	시인	두리반 문학 모임 운영 등

인터뷰 대상자를 5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두리반 운동 기간 중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상당 시간을 두리반 운동에 할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밀도 있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동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사람들로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상을 말해줄 수 있었다. 두리반 운동 참여자 중 상당수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미성년인 관계로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으며, 두리반 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부분적 에피소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는 2012년 6월 둘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12주에 걸쳐 7차례 이뤄졌으며,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질문지에 따른 구조화된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들을 경직시키고 답변을 제한할 수 있는 단점이 따르기 때문에 반 구조화된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두리반 운동에서 얻은 의견, 가치, 동기, 경험, 정서 등에 관한 세세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인터뷰 데이터를 정리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질문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때 5명의 대상자 이외에 추가로 답변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화나 서면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7) 안경은 두리반 철거의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등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또한 그는 두리반 운동의 과정을 설명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 목소리를 떨며 당시를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안경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에게 힘을 빌린 것에 대해 그리고 농성 현장에서 아내가 앞장서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자주 드러냈다.
- 8)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한 고래는 다른 인터뷰이보다 연구자에게 다소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했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간접 체험으로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당시에 그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두리반뿐만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또는 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및 활동 영역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 9) 조용히는 두리반 내부에서 빚어졌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작업 과정에서의 갈등도 포함되었으며, 두리반 내부 갈등을 해석하는데 있어 장발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내부의 갈등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하는 방식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 10) 본 연구의 핵심 인포먼트(informant)였던 장발은 인터뷰를 리드하는 편이었다. 또한 인디 음악가로서 소수자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는 평소 정당, 단체 운영 등에 관여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교육의 중심지인 '목동 키드'(kid)에서 어떻게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4. 두리반 구성 및 활동

두리반은 2005년 개업해 건물주가 대형 건설사에 건물을 팔기 전인 2008년까지 약 3년간 운영되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 부당한 이주 통보를 거부하자 2009년 12월 24일 강제 철거를 당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운동을 통해 같은 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리반은 철거민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실현한 성공적 사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주인 부부의 노력과 지역민, 정당 등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두리반의 운동 방식이다. 두리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리반은 ‘상징적 싸움’ 방식을 취했고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징적 싸움은 권력, 자본, 남성 중심의 사회 등에 대항하여 산문, 노래, 춤 등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가 처음 두리반을 접하게 된 계기도 길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한 음악 공연 때문이다. 두리반과 첫 대면에서 연구자는 눈 앞의 공연이 철거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몇 차례 더 이어진 방문과 공연 중 들은 멘트를 통해 그 곳이 강제 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농성장임을 알게 되었다. 두리반은 음악공연 이외에도 식당과 건물 내부에 다양한 소모임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철거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저항의 대상인 건설사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비폭력적인 성격을 가졌던 문화적 실천들은 문화적 저항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이 장에서는 두리반 운동의 핵심적인 문화 활동이 갖는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사막의 우물 두리반: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 두리반

‘사막의 우물 두리반’은 너태풍, 단편선, 머머스름, 부나비, 한반 등의 인디 뮤지션들이 두리반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무료로 진행했던 음악 공연이다. 이 행사는 다른 모임들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발성 프로젝트의 성격¹¹⁾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두리반은 신촌과 홍대앞을 이어주는 동교동 로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갤러리나 카페, 공연장 등이 들어선 적이 없어 홍대앞의 변화함이나 문화·예술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인디밴드의 공연이 이뤄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두리반의 주인이자 소설가인 ‘안경’은 식당이 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사막의 우물’이라고 표현했다. ‘사막의 우물’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는 인디밴드와 두리반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다.

“한반이라는 음악가가 신문기사를 보고 두리반 현장에 갔다. 혼자 공연을 하는 것으로는 힘이 부족하니 같이 공연하자고 했다.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음악회를 생각했다. 첫 공연 이후 애길 하다 정기적으로 해볼까 했다.” (장발)¹²⁾

- 11) 이후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열린 전국자립음악가 대회 <51+>를 기획했다. 한반, 정동민, 단편선, 박다함 등 인디 밴드 멤버가 주축이 되어 기획한 이 공연에는 60여 개의 인디밴드가 참여했다.
- 12) 본 연구, 특히 4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D의 심층 인터뷰 데이터가 자주 쓰이고 있다. 이는 다른 면접자들보다 장발이 두리반과 자립음악생산조합 관련 언론 및 학술적 인터뷰 접촉이 많았던 관계로 좀 더 풍부하고 대외적인 기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이 D의 자료에 의존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읽힐 수

“저희는 홍대앞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니까 딱히 어떻게 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순 없고, 음악을 통해서 사막 같은 도시에, 공간에서 음악을 통해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고(후략)”
(음악가 한반, <http://www.youtube.com/watch?v=1kBF-FfFLhI>에서 발췌 및 인용)

용산 현장이 마무리 될 즈음 두리반의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용산을 통해 재개발과 철거 그리고 용역이라는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기였던 만큼 지역 정당원이나 활동가 등의 관심이 쉽게 두리반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이기도한데 거기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다가 음악가들이 들어오려고 할 쯤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시작하고, 이제 용산 참사 투쟁이 정리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던 찰나에 마침 두리반이 생겨서 거기에 음악회를 기획하겠다고 해서 ‘고래’는 금요일에 저희는 토요일에 해서 음악회를 만들기 시작했 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제 5월 1일 51+라고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관객도 한 3천 명 정도 왔었고 밴드도 한 70밴드 정도 와서 공연했었거든요. 그 때 이제 팍 커졌죠.” (장발)

“아시겠지만 저는 두리반 이전에 용산에 있었죠. 거기서 두리반에서 했던 모든 것들, 텃밭, 라디오 방송 여러 가지를 먼저 다 해봤어요. 노래도 만들어 불렀고, 두리반이 터지기 한 달 전인가 용산 현장이 마무리 됐잖아요. 저도 용산 마무리하고 바로 두리반이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짐도 많지 않았고, 바로 두리반으로 옮겨 갔죠” (고래)

밴드 섭외, 무대 마련, 음향 및 조명 장치 마련, 공연에 필요한 준비금 등 공연을 위해 제대로 갖춰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팅을 충분히 살려내는 것이 두리반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또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었다. 연구자가 두리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주로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연을 하는 사람도 관람하는 사람들도 다듬어진 느낌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음향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연은 거친 소리가 많이 섞여들어 그로테스크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요소들이 두리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궁금증을 더 자극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두리반을 방문하게 되면서 두리반과 철거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공연을 보기 위해 두리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건설사가 그 공간을 갑작스럽게 철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직접 구호를 외치지 않고도 사회에 두리반의 존재를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켜 투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던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전화기에 있는 모든 밴드, 그 밴드가 알고 있는 다른 밴드까지 모두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테프가 필요하잖아요. 티켓도 판매, 밥 짓기 등 여러 가지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모집도 하고 해서 되게 자발적으로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저희는 51+를 도와달라고 불렀었던 건데 집에 안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기서 모여서 만날 술 먹고, 기타치고,

있지만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특정인에 편향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놓고 거기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장발)

상황은 열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분은 하나였다. 대기업 측의 부당한 철거, 즉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철거 집행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적/문화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공연 중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특정 밴드의 팬이기도 했고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리반에 모이는 것이 더 쉬웠고, 두리반을 알리려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일 수 있었다.

인디 뮤지션이 행사나 집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주체로 선 것은 사실상 ‘뉴타운컬처파티51+’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현장에서 후원하는 캠페인, 공연이 있었지만, 대부분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뉴타운컬처파티51+’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뉴타운컬처파티51+’를 통해 두리반에 모인 사람들은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조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51+라는 이름은 5월 1일 노동절에 따왔어요. 핸드폰 캘린더에 보니까 토요일이고 마침 120번째 노동절이었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밴드도 51밴드 섭외하고, 티켓 값도 5,100원으로 정하고. 중요한 것은 밴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줬다는 거예요. 섭외 전화를 한다고 해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51개를 어떻게 채우나 하는 고민도 했었죠. 아무리 큰 페스티벌이라고 해도 그만한 섭외를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많은 밴드들이 무료로 51개 이상 참여를 해 준거죠. 예매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5,100원이나까 사람들이 막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 때 예매가 거의 마지막쯤에는 800인가 900인가 폭주해서 사이트가 막 다운되고 그랬었거든요. (장발)

예매 수익금은 두리반의 후원금과 음악가들의 공연비로 사용됐다. 공연비 지금은 차후에 논의될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조항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뮤지션들이 노동자로서 생활 가능한 수입 확보의 권리를 주장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전국철거민연합과 활동가, 지역 주민, 문인, 인디 밴드와 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공연 이후 두리반에서 숙식을 하며 장기 농성에 함께 했다. 이들은 주로 청소년 활동가나 기출 청소년, 행사를 위해 왔다가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살진 않는데, 거의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은 따로 있는데 거의 사실 집에 안 들어가고 두리반에서 잔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 가끔씩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 같이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사장님 부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공간이었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화요일마다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하는데 거의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영상을 찍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면서 투쟁까지 같이 이끌며 영화를 찍게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근자들, 청소년인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장발)

“저는 두리반에 살지는 않았어요. 집은 따로 있었죠. 상주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두리반에서 자고 가는 일이 많았죠. 농성을 하면서 여러 활동들도 많았고, 딱히 거기에서 살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저는 그 때 용산에서 집을 다 빼서 나온 상태였죠. 농성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용역 깡패들 감시도 해야 하고, 라디오 방송, 텃밭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래)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두리반 운동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의 자기 거주 결정권 주장의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두리반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은 청소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의 참여, 투쟁방식의 결정, 행정적인 것부터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청소년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 또 기출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밤마다 너무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걸 얘기하자면 반상회 같은 경우도 있었죠. 반상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두리반 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대책위가 투쟁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전략 이런 걸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죠.”(장발)

이러한 문제들은 운동 후반으로 가면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부각되었으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 즉 이 작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작은 사회를 실험하고 있었다. 여러 열악한 상황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뉴타운컬처파티51+’ 행사 나아가 두리반 운동이 마무리된 이후의 평가는 여느 농성장과는 달리 비폭력적이며, 문화적인 방식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두리반 운동도 처음부터 비폭력적인 방식만을 고집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2월 24일 용역에 의해 폐허가 된 현장을 비롯해 농성장에는 늘 폭력사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경계는 항상 늦출 수 없었다고 이들은 기억하고 있다.

“용역들의 침탈이 없었어요. 변화가에서 가까운 것도 있고, 두리반이 워낙 이슈가 되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용역이 뭐 만날 한 100명씩 들어와 두드려 부시고 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들어 왔다는 거. 거기서도 이제 시기를 놓친 거죠. 초반에 아예 빨리 쳐야 했는데 용역들이 그게 아니고 애들 들어오고 사람들이 몇 십 명씩 거기서 살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시기를 놓친 거죠. 상대적으로 뭔가 더 농성을 하기 좋았던…….” (안경)

“처음부터 비폭력 농성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철거 지역에는 늘 용역 깡패가 있잖아요. 언제 들어와서 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저기서 각목을 주어다 놓고, 싸울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죠. 그렇지만 결국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보는 눈이 많으니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폭력이 다가오면 우리도 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철수)

복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두리반 운동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던 이유로 시기와 장소가 좋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두리반 사태가 터진 것은 용산 사태가 마무리된 직후라 사람들에게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때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았던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 관계자와 기업 등에서도 이전과 같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두리반을 ‘작은 용산’, ‘제2의 용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아가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동교동이 과거부터 작가와 진보적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경찰력이 쉽게 동원되지 못했던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홍대앞의 장소성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홍대앞이 문화와 밀접한 지역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자립음악생산자모임: 마이너들의 일어서기

두리반 운동을 함께 하던 인디 뮤지션들은 두리반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운동, 인디 뮤지션 스스로를 위한 투쟁을 기획하게 됐다. 장발은 ‘자립음악생산자’ 모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음악가들의 생활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비유하자면 구멍가게 연합 같은 거죠(2012년 1월 5일, 20대 대표 언론 ‘고함’의 인터뷰 중 발췌).” 두리반 운동에 참여하며 모인 밴드들은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도 ‘연대’만큼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공간이다. 이는 홍대앞의 소비문화 및 유흥문화가 심화될수록 홍대의 지대가 높아지고 폐업하는 클럽이 늘어나 뮤지션들이 활동할 공간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립음악생산자모임을 구성하게 한 동인이 되었다.

“인디밴드들에게 메일을 보냈죠. 메일의 요지는 이런 거였죠. 홍대 주변에 두리반이라는 식당이 있다.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밀려날 위기에 처해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월세나 올라가고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음악가한테 좋은 것이냐. 3번은 우리 두리반을 돕고 같이 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저항을 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음악가들이 동의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 참여를 하겠다고 되가지고 생각보다 밴드가 엄청나게 금방 모였던 거예요.” (장발)

이러한 인디 뮤지션들의 고충은 물론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신촌이 소비 지역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임대료가 상승하자 소상공인이나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 이주자들의 일부는 신촌 지역에서 활동하던 뮤지션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이 활동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음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홍대앞으로 이주를 시작했다(옥은실, 2008). 이와 같이 지역개발과 임대료의 상승 등은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내모는 현상의 원인이 돼 왔다. 원주민의 이동과 지역 공동체의 해체는 생존에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 지역 문화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 물러서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는 실천을 시작했다. 인디 뮤지션들이 모인 배경에는 음악을 하기 위해 설 자리가

없어져가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닥친 재개발로 인한 피해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다.

“두리반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서교동 지하보도 때문이에요. 홍대앞에 혹시 지하보도 아세요? 거기 없어졌잖아요. 서교 지하보도라고……. 거기 그라피티 하는 애들도 오고, 미술 하는 애들도 오고, 음악 하는 애들도 많이 오는……. 합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공간이 없어진 상태에서 게릴라 전술 같은 거 했던 곳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두들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두리반이 터지고, 두리반에 도움을 주는 공연을 하자.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장발)

홍대앞을 자주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공항철도와 대형 극장 그리고 다목적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홍대입구역의 출구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예술가들의 놀이터였던 지하보도와, 홍대앞 이정표와도 같았던 주유소 등을 사라지게 했다. 거대 자본의 투입과 재개발은 지역의 상업화와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이면에는 영세업자와 예술가의 터전이 사라지는 문제 또한 안고 있었다. 홍대앞이라는 공간이 자생적 문화를 가지고 또 이를 향유하는 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순환이 원활해지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월드컵 이전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형성되었지만, 신촌 지역이 자본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자본가들이 홍대앞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장발은 자본의 침투와 더불어 홍대앞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치에 무관심한 인디 뮤지션들의 태도라고 말했다.

“뮤지션이 정치적인 힘이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당국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자영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 발전이 안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월세가 높아지고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지거든요. 그 아저씨들은 지역이 발전하든 말든 영세하거든요. 음악가도 영세 자영업자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낮 놓고 보고 있다가 점점 조그만 클럽들이 없어지고, 근데 옛날부터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 일에 상관없이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처음 데뷔하는 음악가들이죠.”(장발)

따라서 인디 뮤지션들은 클럽 합법화 운동¹³⁾과 같은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립음악생산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른다. 제도적으로 또는 음악을 생산하는 시스템 면에서도 내부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조합에서는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음반 제작방식, 공연 기획방식을 스스로 갖추려 노력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 요구, 소규모 조합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스스로 인디 씬(scene) 내에서도 마이너(minor)에 속한다고 말하는 조합원들은

13) 그동안 라이브 클럽, 제즈 카페 등에서 대중예술인의 공연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홍대앞 인디밴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999년 4월 법안이 개정 돼 라이브 클럽에서의 공연이 합법화 됐다.

청중과의 교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공연 장소가 축소되는 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따라서 스스로 공간을 운영하고,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조합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음악가들이 정확한 페이를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대가인거죠. 노동을 했으며, 음악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하면 클럽에서 배분받는 페이는 작고, 그나마 받은 돈으로는 생활도 안 되니 당연히 알바 뛰어야 하고, 나이는 들고 악순환인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협동조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노조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모든 권리에 대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권리” (장발)

“한예종에 ‘대공 분실’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흥대앞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그 외에는 문래동 로라이즈, 공중캠프 같은 곳이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저희 뮤지션들이 자유롭게 공연하는 편이에요.”(인터뷰 대상자 장발의 2012년 1월 5일자 20대 대표 언론 ‘고함’의 인터뷰 중 발췌)

이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공연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도 연대했다.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열심히 기른 농작물을 그대로 버리거나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팔게 되는 농민들의 처지가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낀 것이다.¹⁴⁾ 또한 이들은 명동 마리 재개발 반대 투쟁, 흥대 청소노동자 투쟁 때 연대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활동의 참여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스스로 권리를 찾고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공연 수익을 배분하는 일이었다.

“공연을 통해 들어온 전체 수입금의 40%는 음악가에게 평등하게 배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어요. 이걸 1차 때의 얘기고 2차 때에는 스태프에게도 배분을 시작했죠. 그래서 2회 때는 20% 배분을 했었고 스태프에게 20%를 음악가는 40%를 디자이너에게는 5%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었고, 3회 때에는 이번에도 음악가에게 40%를 스태프에게는 조금 줄어가지고 13%정도 그리고 공간에다 3%정도를 줬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씩 바꾸는데 정산은 어쨌든 계속 비율에 맞춰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장발)

이렇게 조합을 운영하며 음악가들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되었고, 음악적으로도 공유가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흩어져 있을 때보다 공연 섭외나 작업이 늘어났으며, 주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결국 두리반 내부에서는 철거 반대 투쟁과 함께 음악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두 개의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두리반 현장이 마무리 되고 다시 공연할 장소를 잃은 음악가들은 새로운 터전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밤섬해적단의 장선건 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한 신문 인터뷰(한국일보 2012년 4월 30일자 기사 ‘흥대 앞 가난한 음악, 세상 속으로 행진’)에서 “공동체 공간이었던 두리반이 없어져 조합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14) 자립음악생산조합은 4대강 공사로 쫓겨나게 되어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양평 두물머리의 유기농민들 과 연대해 생활협동조합을 꾸렸다(자립음악생산조합 홈페이지 참조, <http://www.jaripmusic.org/?p=250>).

있다”며 “올해 목표는 조합원을 200~300명으로 늘려 재정을 확보하고 공연 기획, 음반 유통망 등 수익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립음악생산조합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음악을 하기 위한 터전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독립 음악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이 기초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조합 설립과 같은 문제는 음악가의 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다양한 세력과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3) 두리반 문학: 글 나눔을 통한 현실 참여

문학 포럼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주관으로 매달 1회씩 열렸다. 이 모임은 주인 부부 중 소설가인 남편이 속한 한국작가회의 인천지부 모임에서 두리반을 돕기 위한 성명서를 준비하며 처음 시작됐다. 평소 용산 참사 현장을 찾으며 철거민들을 지지해오던 ‘안경’은 자신이 철거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철거를 당하고 보니 철거에 맞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 끝에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철거의 부당함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두리반이 있는 홍대는 예전부터 경찰들이 주목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임 두 곳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저도 속해 있는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자유실천 위원회죠.(중략) 글을 쓰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어딘가에 글을 실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두리반 철거를 알릴 수 있는 성명서를 써 달라고”(안경)

비록 처음 의도했던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작가회의에 알린 소식이 자유실천위원회 소속의 작가들을 움직여 두리반 현장으로 오게 했다. 동료 문인들은 주로 평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이전에도 글로 현실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을 살려 이들은 두리반 문학 포럼을 조직하게 된다. 이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매 주 해당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들과 공감을 시도했다.

“두리반 모임은 문학 포럼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 함께 글을 읽고 토론하는 일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구분을 짓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책을 쓰고 발표하면 여러 사람이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할 텐데…….(중략) 두리반 모임은 두리반에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된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큰 힘이 됐다.”(철수)

모임은 평소 관심이 있는 작가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만족감을 갖게 했다. 이러한 속성은 문학 포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음악공연에서도 개인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참여자들에게 두리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더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문학 포럼의 목적은 무엇보다 두리반 공간에 사람을 채우는 것에 있었다. 이는 ‘안경’과 대화

도중에도 확인된 바 있다. ‘안경’은 철거를 당한 직후 문을 열고 들어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도와주는 사람의 수가 적어 용역의 침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용역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두리반 내부에서 생활하며 생긴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며칠씩 모아두었다고 한다.

“쓰레기도 함부로 밖에 못 내놨어요 일단 2층에 모두 모아뒀다가 일정 정도 쌓이면 밖으로 내놓고 그랬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왜 그러냐고 묻자) 사람이 많아 보이려고 그랬어요. 쓰레기양을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도 좀 참고 2층에 모아둔거예요. 용역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특히 철거 지역에서는 용역 깡패들이 초반에 제압하려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때 밀리면 그 건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 해요.” (안경)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운동 중에는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굳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일종의 심리적 전술로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문학 포럼 또한 두리반 공간을 채우고,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문학 강연에 나서는 젊은 작가들은 기존의 민중문학이나 노동문학의 전통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들은 문학의 정치 행위가 다르게 생각돼야 할 지점을 상기하고, 젊은 세대들과 현재 삶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사유하고 성찰하며,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아무리 많은 작품을 발표해도 결국 독자들이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글이 되고 만다. 그래서 소설가든 시인이든 대중에게 잘 읽히는 글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는 거다. 작가의 중심이 잘 드러나는 글도 중요하지만, 읽히지 않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예전 글들 보면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중략) 그래서 쉬운 말로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그게 문학이든 정치든 해야 한다는 거다. 글이 무조건 어려우면 좋은 문장인가 하는 생각은 구닥다리다, (중략) 요즘은 문학이 작품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철수)

이러한 생각은 두리반 문학 포럼을 이끌었던 ‘철수’가 작성한 모임의 소개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철수’는 철거 현장이나 농성 현장이 마치 ‘운동권 문학’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때와는 달리 용산 참사 이후로 모든 문학이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해졌다고 말한다. 또한 작가들이 삶의 현장을 취재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현장을 단순히 고발하는 차원에서 작품을 생산하지도 않는다고 밝힌다. 따라서 작가들은 문학을 삶과 천천히, 그러나 강도 있게 밀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작가들보다 젊은 작가들에게 더 자주 나타는 현상이며, 이를 단지 세대론적 시각에서 봐야할지 혹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현상인지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다 깊이 있게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리반 문학 포럼을 구성하고 지지하는 작가들은 글을 통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차원의 노력도 기울였다. 한 예로 2010년 8월 30일 자 한겨레신문에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111명 작가들이 작가 선언문¹⁵⁾을 실은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두리반 사태의 심각성을

15) 김별아, 도종환, 송경동, 심상대, 오수연 외 106명 참여.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켜 조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

“한겨레에 작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가의 힘이지. 무려 111명이예요. 선언문에는 이름만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우리 문제를 알리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황을 알리는 데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쓰고, 그걸 열 사람만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중략) 농성 중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명서도 발표하고 일이 알려지면서 공지영이나 다른 유명 작가들이 글을 써서 여기저기 알리겠다고 말도 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 효과는 기대 이상이지요. 하지만 자칫 돌을 맞기도 쉬워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죠. (안경)”

문학 포럼 참가자들은 글을 통해 연대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모임의 목적은 작품의 문학성이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개인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공동으로 모아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4) 촛불예배: 정치적 저항으로서의 예배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 의식을 가진 목회자와 신도들이 모여 조직한 집단이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 “예배는 어느 장소, 어떤 시간에 드리느냐에 따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절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때로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기독교적인 투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요한 여러 현장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두리반에만 상주할 수 없었다.

“촛불기도회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로와 문제해결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고난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기도회를 통한 무제해결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촛불)¹⁶⁾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지도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틀의 교회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장소와 조직 중심의 제도적 대책 기구로 작용하는 교회가 아닌 역사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촛불예배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하는 기독교적인 대안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16) 서면 인터뷰 대상자 ‘촛불’은 목회자로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임 등과 같은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돕는 등 많은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어 심층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서면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는데, 인터뷰는 두리반 참여 배경과 주도했던 모임의 목적과 성격 등을 아우르는 총 14 개의 질문에 A4용지 20장 분량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대의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회의 평신도들과 함께 현장에 나올 수 없다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개혁되지 못합니다. (촛불)

이와 같은 예배의 특성은 두리반 운동이 특별한 지도자를 두지 않고 수평적 조직 형태를 갖추고 민주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과 공통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표하는 형태이다. 이 모임의 또 다른 특징은 촛불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촛불예배에서 촛불은 민중의 자기표현인 동시에 주체성을 의미한다. 즉 촛불을 켜는 행위는 자신을 일깨우고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유신-군사독재로 이어오는 시기에 목요 기도회가 고난 받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증언을 듣는 예배였다면 촛불교회는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가장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촛불)

이전의 목요 기도회에서 시작된 촛불예배 또한 매주 목요일 두리반에서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회는 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또한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의 대한문이나 홍대역 등지에서 예배를 드리며, 두리반의 상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 현장과 연대를 시도했다. 예배는 영세 세입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하는 기도와 설교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종교와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따라서 예배는 종종 천주교의 주관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기독교식 찬송가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민중가요와 번갈아 부르기도 했다. 이는 예배의 목적이 특정 종교에 국한되거나 신에게 개인의 소망을 비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현실에 대해 기도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서면 인터뷰 대상자는 밝혔다. 이와 같이 특정 종교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거칠고 치열할 것이라는 농성 현장에 대한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두리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

5) 칼국수 음악회,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모임, 3층 강좌, 재능 기부를 통한 미래 준비 모임

‘칼국수 음악회’는 활동가인 ‘고래’가 만든 여러 모임 중 하나로, 2010년 3월 두리반 조직이 형태를 갖추갈 시기에 생겨 운동의 마지막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모임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두리반에서 진행된 ‘칼국수 음악회’는 인디 밴드들을 중심으로 한 음악 공연이었다. 이 음악회는 두리반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음악회 모임 중 가장 운동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경’은 ‘칼국수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요일마다 거의 매일 음악회가 없었던 날은 없었어요. 정규 모임이 아니더라도 두리반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음악회를 주도하는 사람들마다 운영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더 많은 역량을 뒀죠. (중략) 칼국수 음악회는 ‘고래’가 이끌었는데 민중가요라던가 직접 작곡한 노래라도 메시지가 분명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요일 별 모임마다 조율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안경)

참여관찰 당시에도 이 행사는 두리반 내부의 다른 소모임보다 강제 철거를 주도한 건설사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모임을 주도한 ‘고래’의 개인적 성향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고래’는 10년 이상 집회 현장에서 활동해온 사람으로 텃밭 가꾸기, 라디오 방송, 음악회,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동을 해오며 투쟁은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리반에서의 음악회 또한 음악이라는 문화적 형식을 빌려오더라도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큼은 간결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두리반에서의 문화 생산이 창작물의 예술성을 우위에 두기보다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개설된 두리반 카페에 그가 올린 음악회 일정을 알리는 게시 글에서는 일정 외에도 해당 건설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강하게 들어 있어 그가 취하는 운동 방식이 어떤 것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이러한 강경한 성격 때문에 ‘뉴타운컬처파티 51+’와 이 모임의 모태가 되었던 ‘사막의 우물 두리반’ 사이에는 약간의 마찰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리반 대책위원장은 2010년 5월 1일 처음 열린 ‘뉴타운컬처파티 51+’의 출연진 섭외 문제에 관하여 두 모임 사이에 좀 더 원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국제연대를 위한 영어 모임’과 ‘3층 강좌’는 ‘고래’가 만든 또 다른 모임이다.

“요일 중 비어있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 좀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한 모임이에요. (중략)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두리반의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글을 써서 카페에 올리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올려 외국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했죠.” (고래)

‘고래’는 영어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두리반에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이 모임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했지만 평소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그의 생각은 확장되어 ‘3층 강좌’로 이어졌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이나 선생님, 학생 이런 경계는 없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고래)

자신의 영어 재능 기부 외에도 두리반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래’와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어로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더 많이 알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론서, 학자 등을 공부함으로써 두리반을 위한 투쟁이 단순한 투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식이나 감성을 얻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래’는 두리반 건물에서 다양한 모임을 이끌며 공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외부인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거 공간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며 공간을 재구성했다. 따라서 두리반 운동을 마친 후 만나게 된 몇몇 사람은 두리반이 다시 오픈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한편 예전의 공간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5. 나가며: 두리반을 통한 사회운동의 변화와 의미

문화는 정치, 경제, 교육 등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 있으며,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보았을 때 문화는 우리의 ‘일상’을 지칭하는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평소 쉽게 지나치기 쉬운 대상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가, 자유, 정의, 혁명, 계급 등과 같은 큰 개념들도 우리 일상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이는 삶을 통해 구체화되는 등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떨어져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직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발전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는 요인이 된다(임정희, 2012).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보면 문화적 실천은 사회운동과 결합해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리반 운동 사례를 통해 문화적 실천과 사회운동의 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두리반 운동은 1950년대 런던 이스트 엔드(East End)의 고사(枯死)정책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임대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곧 지역민들을 다른 곳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두리반과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생존과 관련이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다. 피상적으로는 점포 한 곳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 기업의 자본이 등장해 자기 파괴를 일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두리반은 물리적 폭력이나 선동적 구호가 앞서서 강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 기보다는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정치 영역과 문화 영역의 혼종적 접합을 도모했다. 한 여름 단전이 된 상태에서 밤잠을 잘 수 없고, 쉽게 음식이 상해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두리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밤에 잠이 깨면 드럼을 치고 노래를 했다. 또한 두리반을 지지하는 밴드들에게서 악기를 배워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고,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또 다른 소수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부하는 등 다양한 실천 등을 펼쳤다. 다시 말해 두리반 운동은 문화적 생산의 영역을 사회운동과 결부시켜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시도했다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다른 상황, 다가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또한 이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나아가 문화적 실천과 결합한 운동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른 현장과의 연대도 시도되고 있으며, 새로운 두리반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내줌으로써 또 다른 소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들 속에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개방성’의 영역이다. 이는 두리반 운동이 열려 있고 소통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전 정보나 지인 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기술 등 여러 국면에서 다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응하는 문화운동의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문화운동의 정체성을 재고하게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사회운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싸움과 지식인 중심의 문화운동론,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확대되고, 문화/예술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통한 운동 방식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 문화운동 진행과정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문화운동의 관점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사례를 통해 문화적 실천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과거 사회운동에 나타났던 엄숙주의를 뛰어 넘어 분노와 투쟁만을 운동의 원동력으로 삼던 사고에서 벗어나 재미와 놀이,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운동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자 했다. 목수정(2008)은 이러한 노력들을 새로운 ‘문화의 정치화’라고 설명하며 더 많은 정치와 문화적 상상력의 접목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년 여 동안 두리반이 전개한 다양한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과 외부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두리반을 지켜낸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한국작가회의와 마포 지역의 정당, 뮤지션, 종교인들의 조합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조직적인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와 같이 문화적 요소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두리반 운동은 개인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적인 측면이 있으며, 모인 사람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다.

나아가 문화적 실천을 통한 참여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접합을 시도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는 곧 지역 공동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역의 문제가 곧 나의 일상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주인의식이 두리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폭력과 모든 사회계층의 참여, 문화를 통한 재기발랄한 시위 방식,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했던 두리반 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사에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 두리반을 통해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시민단체를 스스로 조직하고, 개개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새로운 운동 방식을 실험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적 실천 중심의 사회운동은 더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리반 운동에 참여했던 다중은 현장에서 문화적 실천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와 문화를 결합시켰으며, 공간과 주체가 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식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사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드러내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를 공권력과 자본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실천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 다중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두리반 운동의 사례와 같이 다른 사회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김호기(2001a).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 서울: 아르케.

_____(2001b). 앤서니 기든스: 후기 현대성과 제3의 길. 『현대 비판사회 이론의 흐름』. 과주: 한울.

목수정(2008).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 놓다. 남구현 외 5명 지음. 『2008 촛불의 정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울: 메이데이.

신정란(2010). 『홍대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지역의 젊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은실(2008). 『홍대앞 문화들의 변화에 대한 고찰: 1990년대 중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연(2008).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제55호, pp.150~167.

_____(2010). 『대안문화의 형성: 한국 문화운동의 최전선』. 서울: 문화과학사.

임정희(2012). 문화행동을 둘러싼 개념화: 예술, 행동주의, 문화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11월 월례 포럼』.

정인경(2008).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탐구: 싸울로 비르노의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37호, pp.10~22.

정재철(1997). 『문화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정철희(2003). 『한국시민사회의 궤적: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동학』. 서울: 아르케.

정태석(2006).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유럽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 72호, pp.125~332.

조정환(2003). 『아우또노미아: 다중의 자율을 향한 네그리의 항해』. 서울: 갈무리.

조희연(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비판, 실천담론 복원과 재구성을 위하여』. 서울: 당대.

_____(2002).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 pp.293~351.

Antonio Negri & Michael Hardt(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조정환 외 2명 역.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서울: 세종서적.

John Storey(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Paolo Virno(2004).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김상운 역. 『다중』. 서울: 갈무리.

<인터넷 기사 자료>

2012년 1월 5일자 20대 대표 언론 ‘고함’의 인터뷰: <http://www.goham20.com/1429>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두리반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duriban>

자립음악생산조합: <http://jaripmusic.org>

뉴타운컬처파티 공식 블로그: <http://ntpc.tistory.com>

유튜브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1kBF-FfFLhI>

ABSTRACT

New Social Movement in the Form of Cultural Practices: A Case Study of Dooriban Movement

Eun-Sil Ok* · Young-Chan Kim**

This study looks into Dooriban movement, which problematizes the ways in which social movements are carried out in everyday settings in modern Korea. Contrary to traditional social movements, Dooriban movement led by active/independent participants -who are locally situated and culturally sensitized- showed a new way of engaging with political power. Making use of qualitative methodology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emergent cultural practices that redefine and reconfigure the working mechanisms of social movements in Korea today.

Keywords: Social Movement, Cultural Practices, Dooriban, Independent Music Coop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